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요 성과 및 현황 발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김현 위원장은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약 4만 6천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고 밝혔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플랫폼은 네이버(37.18%)였으며, 유튜브(15.56%), 주요 SNS 플랫폼(11.43%)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내란 선동’ (22.6%)과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정보(18.7%)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집단 댓글 활동이 의심되는 부정선거 관련 사례들이 다수 접수되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정황이 드러났다.

김현 위원장은 “허위조작감시단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고발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16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접수된 유튜브 약 8,000여 건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과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파출소는 허위정보 차단뿐 아니라 올바른 정보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보와 대응 과정을 통해 댓글 창에서 자정 효과를 이끌어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제보와 실시간 대응이 허위 정보 유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 차단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파출소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민주파출소는 정교한 해킹 공격을 받았으나 방화벽 시스템을 통해 이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단체들이 허위제보를 선동하며 민주파출소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허위조작감시단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은 허위정보에 맞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민주파출소는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는 앞으로도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국민의 올바른 제보와 참여를 기반으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